

지방자치·종합

19대 총선레이스 돌입…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大選 전초전… 여야 사활 건 대혈투

MB정권 심판… 朴風 VS 安風 대결구도 관심

광주전남 정치권도 요동… 공천경쟁 불붙을 듯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1 총선은 그야말로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벌릴 수밖에 없는 '대혈전'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9대 총선은 단순히 의회 권력을 새로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18대 대선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초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역동성이 큰 우리나라 정치 특성상 정국의 흐름을 바꿔 끌 만한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어 결과를 살피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쪽이 대선을 유리한 입장에서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벌써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승리=대선승리'의 등식이 회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총선은 대선 전초전 양상 속에 여야 대선 주자들이 총출동하는 '별들의 전쟁'을 방불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하나나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도부 공백상태에 빠진 하나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이며, 애원에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 일선과 거리를 두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역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성적표에 따라 이들 대선 주자의 입지도 재간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총선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의 공수대결이 어느 때보다 드ramatic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당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총선 판도가 애당에 유리한 것으로 흐르는 것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판세를 좌우할 변

수로는 '경제'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박풍'(朴風·박근혜 바람)과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대결로 변수가 될 수 있다. 서울시장 보선 1라운드에선 안풍이 박풍을 놀렸지만 이번 총선 2라운드에선 박 전 대표가 사실상 선거사령탑으로서 최일선에 나선다는 점에서 승부를 쉽게 짐작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심사 중 하나는 여야 모두 새로운 정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이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기로 한 가운데 하나나당 역시 당명 변경 또는 재창당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덕발인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애당에 애원 연대까지 이뤄질 경우 공천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세력, 제3세력의 선전 여부도 주목되리다. '안철수 돌풍'에 힘입은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기성 정치권이 사실상 초토화된 가운데 진보·보수 양 진영의 시민사

2012년 4·11 19대 총선 일정

2011. 12.13(화)~2012.3.21(수) 예비후보자 등록
2012. 3.22(목)~3.23(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오후6시까지)
3.23(금)~3.27(화) 선거인명부 작성·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3.29(목) 선거기간 개시일
4.4(화) 선거인명부 확정
4.5(목)~4.6(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4월 11일(수) 투표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서삼석 무안·황주홍 강진 군수 퇴임

“내년 총선 출마”

내년 4월 총선에 출마의 뜻을 밝힌 서삼석 무안군수와 황주홍 강진군수가 지난 9일 퇴임식을 했다.

서 군수는 이날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임기를 다하지 못해 군민에게 죄송하다”며 “10년에 가까운 재임기간 협조해주고 성원해 준 군민과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

했다.

황주홍 강진군수도 이날 군청 대회 의실에서 퇴임식을 했다. 황 군수는 퇴임사에서 “군수 임기를 다 체우지 못하게 돼 송구하다”며 “정치권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위치에서 고향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노관규 순천시장 복당 승인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복당을 승인했다.

노 시장은 지난 2010년 순천시장 공천 방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노 시장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

해 오는 13일 시장을 사퇴할 예정이다. 반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퇴한 황주홍 전 강진군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의 적극적인 반대 등으로 인해 복당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남준 전 행안부 차관 출판기념회 성황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출판기념회가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지지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사진〉

이날 출판기념회는 기존 출판기념회와 달리 유명 정치인의 축사를 없애고, 20대에서 70대까지 대학생, 두부가게 사장, IT업체 직원, 여성기자

인, 자전거봉사단 회원, 도시계획연 구원, 봉사시설 원장, 인성교육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8명의 시민이 ‘광주 희망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또한 ‘탤런트 정보석의 반짝 토크’ 와 다채로운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투자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혁신 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우리사무소는 중심상업용지, 이주지택지(점포겸용), 협의자택지 및 혁신 도시 주변 토지를 투자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10-2609-5888, 010-3153-4242

전남나주시산포면 매성리354-32(위치: 산포면 전파관리소 부근)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다가구주택

북구 문흥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75평 건평130평
김정기3억3천만 최저가2억3천만

농지및토지

나주시 봉화면 옥곡리 과수원3,600평
김정가 2억3천만 최저가 1억6천만
회순군 이양면 오류리 농지(관리지역) 1880평
김정가 1억1천만 최저가 7천6백만

전원주택

담양군 남면 구산리 단독주택 대지152평 건평43평
김정기8천7백만 최저가 6천2백만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단층주택 대지927평 건평42평
김정가 1억7천만 최저가 1억2천만

근린용지

남구 백운동 4차선대로변 대지70평(준주거지역)
김정가 2억9천만 최저가 2억

토지매매

화순군 도곡면 도곡운천방향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원
담양군 남면 구산리 흥원동 흥원방면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원(조정가)광주 남구 월 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동명공인중개사

【상가 매매】

- 광주최고 핸섬상권 대지 165㎡ 건물400㎡ 매매가 29억원
(보증금3억, 월1700.용자10억) 유령브랜드 전문취급점포
- 광산구 첨단지구 신축건물 대지 963㎡ 건물1000㎡ 매매가 16억5천만원
(보증금3억, 월950.용자10억) 입주점점포 설립중
- 북구 대지 15천5백㎡ 건물560㎡ 매매가 21억5천만원(보증금6억, 월1,000만원)
임지여건 최상 입점점포 성업중
- 광산구 월계동 대지 227㎡ 건물494㎡ 매매가 5억6천만원
(보증금1억, 월200만원) 월330만원
- 남구 대지 624평방미터 건물2355평방미터 매매가 28억원
(보증금12억, 월1200만원) 신상권 입점점포설립 고수익률

【신축모델 매매 및 임대 - 물건다수 확보중】

- 신축무인텔 매매 각실26실 매매가 30억(용자15억) 최신시설
- 임대도 가능 매매금 5억, 월1,900만원

- 신축모델 매매 각실32실 매매가 28억원(용자12억)
- 매입후 임대할 경우 보증금 8억, 월2100만원 가능함.

【고시원】

- 용봉동 대지 310㎡ 건물618㎡ 매매가 7억9천만원
(용자3억, 월1,200만원) 안정적 고수익 투자적합

【근린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토지매매】

- 광산구 수완지구 자연녹지지역 8천평(임박율로)부근
- 대지 15,000㎡ 매매가 13억(용자10억) 물류센터 등 적합
- 전 5,140㎡ 매매가 5억, 월1,900만원

- 북구 양제동 근린상업지역 일정 638㎡ 매매가 1억2천만원
(대규모신조성지구 투자적합)

【영암을 일반상업지역 대지매매】

- 대지 1,555㎡ 매매가 12억원(65평, 대형점장 등 적합)

【담양 전원주택 매매】

- 수복면 대방리 2,510㎡ 주택2층(기와, 슬라브) 198㎡ 매매가 13억6천만원
주변경관최상 남향 전디발조성

- 수복면 대방리 전원주택부지 대지 572㎡ 매매가 18,200만원

【축산매매】

- 1층 330㎡ 보증금5천원 월300만원 시원있음
(시설최상 고매출 주차장원비 매출장부 공개가)

- 1.2층 595㎡ 보증금 1억원 월1,200만원 시원있음 시설최상임대 500만원이상

【축산매매】

- 장성군 남면 도로집 대지 1,937㎡ 건물 1,157㎡ 최신시설원비 위치최적
매매가 9억7천만원

【부동산구합】

- 상가건물 및 담양·장성 전원주택 부지 등 부동산 구합

대표전화 010-3180-9211

한나라당 물갈이 쓰나미 오나

이상득·홍정욱 불출마 선언

한나라당 이상득(경북 포항남구·율릉군) 의원과 홍정욱(서울 노원구) 의원이 11일 19대 총선 불출마를 잇따라 선언하면서 국정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 당내 최고령(76) 최다선(6선)이고, 초선의 홍 의원은 40대 초반의 대표적 소장·쇄신파라는 점에서 이들 2인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은 여권의 물갈이 흐오리에 불을 지피면서 선수와 계파를 초월한 전방위 불출마 선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여권의 총선 물갈이 움직임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총선 판도가 조기에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쇄신과 화합에 작은 밀거름이 되고자



〈이상득 의원〉



〈홍정욱 의원〉

말씀에 하늘에는 진실로써 응해야지 꾸밈으로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버슬을 하는 자는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떠나야 한다고 했다”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꾸짖으면서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고자 한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상득 보좌관 수여대 뇌물수수혐의 구속

검·로비자금 7억 용처 추적

‘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 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부장검사)는 10일 SLS그룹 구명로비 명목으로 수여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수)로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